

디지털 시대 ‘사라지는 DVD방’ 사양산업 지원 필요

광주 6곳·전남 10곳 제외 ‘폐업’
손님 급감…매출 70~80% 감소
미디어 환경·기술 변화 등 원인
“재교육·훈련 등 체계적 지원을”

“요즘 누가 DVD방에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과거에는 충장로에 관련 업종이 10곳 넘게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군가 매장을 인수한다고 하면 그냥 넘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광주 동구 황금동에서 DVD방을 운영 중인 김모(62)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디오방이 유행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동종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문을 닫을 때가 됐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충장로에 남아있는 매장이 없어 DVD방을 찾는 손님들을 거의 독점하는데도 매출은 과거에 비해 70~80% 줄었다. 하지만 월세 등 가게 운영 비용은 그 대로라 사실상 순이익은 제로다”며 “이용요금도 최저가 수준으로 낮췄지만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나이가 있

어 업종 변경도 쉽지 않고, 폐업 시 시설 철거 비용이 3000만원 이상 필요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때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DVD방 등 비디오물감상실업이 지역 상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 시설 노후화, 서비스 제공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23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DVD방 등 다수의 시청실과 시청 기자재를 갖춰 비디오물 시청을 제공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된 광주지역 업소는 6곳에 불과했다. 남아있는 업소의 가장 최근 허가일은 2003년 9월로, 이후 신규 창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비디오물 감상 업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10개의 업소가 남아있다.

과거 등록된 업소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영업이 취소·말소·만료·정지·중지됐다. 광주에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98개소가 폐업했으며 19개소가 각종

사유로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전남지역 폐업 업소는 60곳, 취소·말소 등 상태인 업소는 8곳이었다.

비디오물감상실업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당시 가정용 비디오 플레이어(VHS)와 DVD 플레이어의 대중화로 영화나 비디오 콘텐츠를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감상실 업소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인프라 확충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히 확산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도 결정타가 됐다.

최근 들어서는 콘텐츠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409만 명에 달했다. 이어 쿠팡플레이가 748만 명, 티빙이 705만명을 기록했고, 웨이브

(426만명), 디즈니플러스(268만명), 왓챠(49만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넷플릭스 이용자 수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OTT 플랫폼에 접속하는 셈이다.

영화관 업계도 비슷한 시기 OTT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형 스크린과 음향 등 ‘극장 경험’이라는 차별화 요소를 내세워 나름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뚜렷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점차 도태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시설 노후화, 영상물 관련 규제 강화, 범죄 취약 공간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이 겹치면서 신규 창업은 사실상 끊긴 상태다. 특히 DVD방 등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 행위 사례가 발생해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이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업소들도 업종을 전환하거나 시설을 리모델링하지

않는 이상 생존 전략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단순 감상실업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사양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일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경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일부 산업들이 쇠퇴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문제는 기존 산업이 소멸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충분히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산업의 소멸을 막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단순히 방치해서도 안 된다. 사양 산업이 새로운 기술 기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업종 전환 등을 위한 재교육 및 훈련의 종류와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육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재도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한우 할인행사

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 축산매장에서 국거리부터 안심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본 매장에서 오는 27일까지 100g 당 6900원에 판매하던 한우 불고기와 암소한우사태를 42% 할인된 금액인 각 3980원에 판매한다. 또 1등급 암소한우채끝도 100g 당 1만49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 24일까지 식품 행사장에서는 한우 냉동 국거리를 1팩에 5000원, 한우 안심도 1팩에 3만1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아울렛 수완점, ‘노스페이스’ 착한소비 행사

수익금 일부 월드비전에 기부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노스페이스 착한 소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스페이스 에디션’은 ‘쇼핑과 기부를 한 번에’라는 슬로건으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월드비전에 기부하는 착한 소비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노스페이스 에디션’ 10주년을 맞이해 상반기 최대 규모로 행사가 진행된다. 봄·여름 시즌 고객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인기 아이템과 등산화, 런닝화가 전개되고 초특가 줄서기 상품도 선보인다.

또한 행사기간 롯데아울렛에서만 특별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도 준비된다. 대표적으로 시티 칠러 경량자켓 7만9000원, 클래식 반팔 폴로티 5만원, 하이 마운틴 팬츠 5만9000원, 벡티브 익스플로링 등산화 9만9000원, 슈퍼 킥스 운동화 7만9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행사기간 2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2만원,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3만원 금액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박운영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영업팀장은 “노스페이스 에디션 10주년을 맞아 해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쇼핑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전남 일자리 박람회’ 개최

30일 목포실내체육관서 지역민 150명 채용 목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라남도, 목포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보훈청 등과 함께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위해 ‘2025 상반기 전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조선업·식품제조업·화학·관광숙박 등 전라남도 내 28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150여명 채용을 목표로 일반 구직자, 대

학생, 특성화고 학생 등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박람회를 통해 전라남도 강진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 업체인 ㈜로우카본은 생산직, 연구원 등 1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며, 식품제조기업인 동원F&B, 삼진물산, 대창식품, 다솔 등은 생산직과 사무원 등을 채용할 계획이다.

조선업, 관광숙박 등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직군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구직자는 행사 당일 박람회장에서 이력서를 지참해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또 한전KDN, HD현대삼호,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구직자를 위한 취업전략’ 채용설명회, 이력서 사진촬영, 힐링 상담 테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서부플랫폼(061-287-1141)과 전라남도 일자리정보망(job.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석 광주전남중기청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해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 트럭·버스 타이어 안전점검 캠페인

24~25일, 고속도로 휴게소서

금호타이어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 및 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시흥방향), 여주(강릉방향), 신탄진(서울방향), 철곡(서울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

는 고객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종합적인 안전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관리 요령과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KXA17’, ‘KRA53’, ‘KRA60’, ‘KXD10+’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

행한다. 신제품 KXA17은 중장거리 트랙터 및 카고 차량을 위한 전용용 타이어로 마모율별 요구 성능에 최적 성능을 발휘하는 신개념 지능형 패턴 기술을 도입하여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 품질서비스팀 최준성 팀장은 “대형 차량의 장거리 운행 안전은 타이어 점검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가 타이어 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목포 용해지점 확장 이전

지역 밀착 금융서비스 강화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지역 주요 인사 및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용해지점 이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장 이전한 용해지점은 기존 북항지점(목포시 산정동)을 목포 용해지구 내 연산동으로 이전하며, 지점 명칭도 ‘용해지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용해지점은 목포시의 주요 교통망과 인접해 고객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 인구의 금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지

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자금과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항상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